

10 현장

자율·자유전공학부 새터 현장을 찾아가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무전공제 확대로 자율전공학부는 정원이 늘었고,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다.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지난달 첫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주관한 '열린전공 프리캠프'에서 첫 학교 행사를 가졌다. 양 캠퍼스에서 첫 학교 행사를 맞은 이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대학주보가 그 현장을 찾았다.

국제캠-자유전공학부

지난달 17일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이 '자유전공학부 SLS 부트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우정원 1층에 모였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행사는 사흘간 진행됐다.

참가자 수는 총 241명. 국제캠 내 학부 최대 규모다. 신설 학부인 만큼 학생회가 아닌 학교 측 주관으로 진행됐다.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직원은 행사일까지 밤새워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자유전공학부 배재형 학부장은 "행사 전날까지 교직원과 학생 멘토단이 수고해 줬다"고 말했다.

자유전공학부
직접 로고·점퍼 디자인

자유전공학부는 신설 학부인 만큼 새 학부 점퍼(학잠)와 학부 로고가 필요했다. 따라서 신입생이 직접 학잠과 로고 제작에 참여했다.

첫날 조별로 구성된 신입생은 학부 로고와 학잠을 직접 디자인하며 자유전공학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김민석(자유전공학부 2025) 씨는 "신입생이 로고와 학잠을 직접 제작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학부 로고 최종 후보 투표가 진행됐다. 학생과 교수는 마치 가게에서 옷을 고르듯 신중하게 투표에 임했다. 24개 조에서 각각 제작한 디자인 중 12개 안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김윤세(자유전공학부 2025) 씨는 "학잠 로고 디자인과 투표에 참여하면서 어색했던 조원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며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디자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학부 로고 최종안 투표가 진행됐다. 12개 안을

놓고 학생·교수가 QR코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최종 확정된 로고는 자유를 상징하는 새와 책을 새긴 디자인이었다. 디자인에 참여한 김다은(자유전공학부 2025) 씨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배울 학문을 의미하는 책과 날아오르는 새를 표현한 로고"라며 "1년 동안 자유전공학부에서 공부하고 각자 꿈꾸는 길로 더 높이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했다"고 말했다.

타 전공 교수·멘토
모두가 모인 현장

캠프 현장에는 학문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함께했다. 자유전공학부 교수진은 ▲인공지능 ▲현대미학 ▲진화심리학 ▲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존 소속 단과대와 후마에서 넘어와 자유전공학부에 함께하게 됐다. 자유전공학부 오태호(현대문학) 교수는 "여러 분야의 뛰어난 교수들이 학생을 위해 모인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며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교수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에서 모인 수십 명의 재학생도 멘토 자격으로 신입생 학교 적응을 도왔다. 신설 학부인 탓에 재학생이 없어 신입생의 '선배'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신입생에게 자신의 학과를 홍보하며 교육과정과 전공별 진로 설명을 이어갔다.

신입생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진로 설계를 위한 열의를 보였다. 박소민(자유전공학부 2025) 씨는 "원래는 공대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멘토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심리검사연구소 '당신의 포레스트'에서 초빙된 외부강사 특강도 열렸다. 신입생이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진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캠프 막바지, 학생 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첫날 서로를 탐색하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학생은 시간이 흐르며 전공, 진로 등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김민석(자유전공학부 2025) 씨는 "이번 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앞으로 학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캠프를 마친 일부 학생은 전공과 진로에 확신을 갖기도 했다. 신희재



자유전공학부 SLS 부트캠프 단체사진.

(사진=김규연 기자)



자유전공학부 이정희 학부장이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김유경 기자)



확정된 자유전공학부 로고 앞에서 배재형 학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규연 기자)



조별 활동 중인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사진=김유경 기자)

(자유전공학부 2025) 씨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가 생겨 기대된다"며, "추후 입학할 후배들을 위해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캠-자율전공학부

서울캠 자율전공학부는 새내기 배움터에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전공 프리캠프'가 양일간 열렸다. 무전공 학생 교내 적응을 위해 학교 주관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것이다. 첫날 환영사에서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은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전공 탐색을 응원한다"며 신입생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다양한 학문의 교수진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자율전공학부도 마찬가지였다. 캠프 첫날 교수 소개 순서에는 정경대, 경영대, 호관대, 이과대, 생과대, 자율전공학부 교수진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소속 단과대에서 학생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대규(경영학) 교수는 "1년 동안 경영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했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큐알코드를 띄우기도 했다.

다양한 단과대 교수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신입생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김서현(자율전공학부 2025) 씨는 "강연자가 매주 바뀌는 옴니버스 방식의 수업에서 여러 교수님의 강의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남규(자율전공학부 2025) 씨 또한 "이과대로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며 "수학 관련 공부와 더불어 경제학, 법학, 철학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신입생의 전공 설계를 돕기 위해 '슬기로운 대학생'을 주제로 여러 특강을 기획했다. 첫째 날엔 금융감독원 민재기 교수가 대학생을 위한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글로벌리더전공 서인겸 교수가 법률 특강을 맡았다.

마치며

이번 행사는 자율·자유전공학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학생의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그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전공학부 방향성에 배후와장은 "학과 중심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내년부터 다전공 의무화도 고려 중"이라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